

전남 관광객 급감...콘텐츠 차별화 시급

순천만정원·습지 지난해 가장 핫한 여행지 불구 60만명 줄어 여수 돌산공원 해상케이블카 1년 만에 80만명 넘게 감소

문화관광연구원 '입장객 통계' 분석

전남지역 관광객이 급감했다. 전남의 대표적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를 찾은 관광객이 60만명 넘게 줄었고 '핫'한 여행지로 떠오른 여수 돌산공원(여수해상케이블카)을 찾은 관광객 수도 1년 만에 80만명 넘게 급감했다. 관광객 발길을 불러들일 차별화된 관광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2018년 가장 '핫'한 관광지-2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주요관광지 입장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려온 곳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로 모두 544만

938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지난해 가장 많은 외국인(2만278명)이 찾아 외국인 관광객들의 최고 여행지로도 꼽혔다.

문화관광연구원 통계는 증빙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광지점 승인 후 입장권 매표 실적, 무료관광지 무인계측기, CCTV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여수 엑스포해양공원(EDG)은 모두 333만4613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내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전남지역 관광지 2위에 올랐다. 여수 오동도는 지난해 300만1213명의 발길을 불러들이며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관광 정매실농원(211만3082명)이 네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찾았고 여수 돌산공원(여수해상케이블

카)이 5위(185만3622명)를 차지했다. 이어 담양 죽녹원(95만9045명), 아쿠아플라넷여수(94만2521명), 영광 불갑사 관광지(85만9668명), 순천 낙안읍성민속마을(79만292명), 여수 향일암(75만212명) 등의 순이었다.

여수는 국내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전남지역 10개 관광지 중 5곳이 포함된 전남 대표 관광지임을 재확인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73만8074명), 장성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71만2238명) 등을 찾은 관광객도 많았다.

◇관광객 급감, 차별화 콘텐츠 발굴 시급 =전년도에 견줘 관광객 수가 급감한 점은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경우 지난 2017년 관광객(611만7633명)에 비해 60만명(66만8251명) 넘게 줄었다. 전남 전역에 케이블카 열풍을 일으켰던 여수 돌산공원(해상케이블카) 관광객도 2017

년(265만6977명)보다 무려 80만명(80만3355명)이상 급감했다. 순천 낙안읍성민속마을도 100만명이 넘게 찾았던 2017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79만292명만 다녀갔다. 강진 가우도도 2017년(89만 328명)에 비해 지난해 68만350명만 찾는 등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었다. 일각에서는 폭염이 관광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관광의 정매실농원의 경우 지난해만 211만 3082명이 찾아 2017년(124만 6360명)에 견줘 86만6722명이나 늘었다. 관광업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 관광객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 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 상품화함으로써 변화를 요구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대표 음식 한자리에

10일 DJ센터서 페스티벌

광주시는 광주만의 독특한 맛과 역사를 담은 광주대표음식 선정을 위해 오는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9 광주대표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시민 공모로 선발된 100인 토론회, 광주대표음식 9개 후보 음식 소개를 결정한다. 주제관은 9개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웹툰으로 선보인다.

현장 시연회는 청년 셰프들이 후보 음식을 시연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시관 관람 시 배부된 평가표를 작성·제출하면 추첨해 3만원 권 상당의 광주 상생카드를 지급한다.

후보 음식은 상추 튀김, 오리탕, 한정식, 송정리 떡갈비, 주먹밥, 팔각국수, 육전, 무등산 보리밥, 애호박

찌개다.

100인 토론회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와 시민이 9가지 음식을 맛보고 토론을 거쳐 차별성, 상징성, 대중성 등 3개 평가표에 해당 음식 3개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당일 공개된다.

100인 토론회 결과, 전시관 관람객 평가 의견,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광주대표음식선정위원회에서 대표 음식을 결정한다. 주제관은 9개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웹툰으로 선보인다.

현장 시연회는 청년 셰프들이 후보 음식을 시연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시관 관람 시 배부된 평가표를 작성·제출하면 추첨해 3만원 권 상당의 광주 상생카드를 지급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광주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한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 적용, 재정·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지난달 17일 개정된 지역특구법의 발효로 시행됐으며 오는 7월 말 1차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9년까지 첨단 3지구 26만㎡ 부지에 사업비 1조원(국비 8000억·시비 1000억·민자 1000억)을 투입해 인공지능연구원, 인공지능 기반 캠퍼스 등 인공지능 기반 및 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2만 7500명의 일자리 창출, 2000개 창업기업 조성, 5천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발대식 2일 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1층 3D영상표준시사실에서 열린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발대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김성진 테크노파크원장,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머플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10년 방치 옛 축산기술연구소 평동시험장 태양광 전남도민 발전소로 바뀐다

옛 축산기술연구소 평동시험장이 태양광 전남도민 발전소로 바뀐다.

2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강진으로 이전한 이래 10년 가까이 방치됐던 옛 축산연구소 광주평동시험장 부지가 20MW 태양광발전소로 조성된다.

전남도는 44만5000㎡(83억여원) 규모

의 시험장 부지를 전남개발공사에 넘겨 태양광 발전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와 도의회 승인을 거쳐 해당 부지를 전남개발공사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넘겨받은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전남도 인재육성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부지를 넘겨 받는대로 그린벨트 해제와 사업 타당성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옛 축산연구소 평동시험장을 태양광발전소로 조성하는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안 하의도 평화의 숲 만든다

전남도, 40개 섬 경관숲 조성

신안 하의도가 평화의 숲으로 조성되는 등 전남 서남해안 40개 섬이 역사와 문화를 담은 경관숲으로 조성된다.

전남도는 2일 '서남해안 관광벨트 경관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테마 숲 조성 대상지 40개 섬과 동북아 평화의 숲 조성 대상지 1개 섬을 발굴, 내년부터 100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 섬의 가치를 품은 경관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경관 생태 조정 디자인 관광 분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까지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2020년

이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섬 경관 숲 복원 조성 사업은 ▲상록활엽수림 보전을 위한 '경관보존숲' ▲산림식생 복원을 위한 '경관 복원숲' ▲방풍림·당숲·마을숲 등 보전을 위한 '관광풍지 보존숲' ▲'관광풍지 회복숲' ▲'평화의 숲'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올해 신안 하의도 일원에 시범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추진, 서남해안 섬 지역 경관 숲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다도해의 섬과 해안면에 다양한 콘셉트의 경관 숲을 조성, 해양관광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시민감사관 50명 위촉장

위법·부당 행정행위 등 파악

광주시는 2일 제9기 시민감사관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9기 시민감사관은 이달부터 오는 2021년 4월까지 공무원 부패행위, 예산 낭비 행위, 소극행정이나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시민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제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시민감사관을 공모하고 최종 50명을 선정했다.

이번 9기는 서류심사뿐 아니라 면접심사를 추가해 시정 참여에 대한 적극성, 부정부패 척결 의지, 청렴 의식 등을 심

사하고 5개 자치구와 성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성 등도 살펴 확정했다.

지난 8기에는 200건 이상의 제보와 건의, 220여 건의 감사 참여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 내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속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